



평범한 날의 폭음

최경훈

폭발물처리대원은 용감해야 한다. 만약 발밑에 있는 위험앞에서 겁을 먹고 공포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죽음을 맞받아나갈수 없다...

그들앞에 동체를 드러낸 폭발물은 처리전투과정에 조금이라도 진동을 받으면 폭발하는 피해반경이 1.5키로메터에 달하는 250키로그람짜리 화학시한폭탄이었다.

《금석동지! 심지가 젖어들어옵니다. 안되겠습니까!》

신관부위를 살피던 한명남이 다급히 소리쳤다.

그것은 폭탄이 진동을 받았다는 소리이다. 심지가 젖어들어 가연성고정못을 녹이면 격침이 되관을 때린다.

그러면 폭발이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그들은 옆에서 자기들을 도와 주고있던 대학생들과 인민보안원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당황한 몇몇 사람들이 산아래로 내려뛰는것을 본 김금석은 그들에게 다시 소리쳤다.

《산아래가 아니라 위로 피하라!》

그리고는 한명남을 밀쳐버리고 폭탄의 윗부분에 몸을 덮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산아래쪽으로 폭발반경을 좁혀 가능한것 피해를 막자는 의도였다.

그에게 떠밀리워 한쪽으로 넘어졌던 한명남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금석의 곁에 끼여들듯 엎드려 폭탄을 함께 덮었다.

《명남이, 어찌자는거야? 죽고싶어?!》

《금석동지! 혼자선 안돼요!...》

최후의 순간에 죽고싶냐구?!

금석이 늘 입버릇처럼 쓰던 이 말이 이런 정황에서까지도 맞겠는지 따져볼 겨를이 없다.

수시로 맞닿게 되고 무조건 해야 하는 폭발물 처리전투는 모두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하고 심장을 조이는 아슬아슬한 순간순간이다.

전쟁시기도 아닌 평화시기에 하필이면 왜 굳이 폭발물처리대원이 되였는가?

허다한 해제전투과정들을 돌이켜볼 때마다 딱히

답변을 찾기 어려운 이 물음에 그들은 구태여 대답을 피한다.

그 대답을 대신하여 최후의 요란한 폭음이 평범하고도 레사로운 하루가 흘러가는 조국의 산밭을 뒤흔들었다.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장의 문건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집무탁우에 쌓인 많은 문건들중에서도 유독 이 문건만은 그냥 손에서 내려놓게 되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시 한번 문건을 읽어보시였다.

...

강원도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 조장이며 세포위 원장인 김금석동무와 조장 한명남동무들은 마식령 정점가까이에 있는 절골 산중턱에서 조국해방전쟁시 떨어진 폭탄이 발견되였다는 통보를 받고 현장에서 폭발물처리전투를 벌리던중 터지는 시한폭탄을 몸으로 덮어 현장과 주변에 있던 수십여명의 대학생들과 인민들, 인민보안원들을 구원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였습시다...

그이께서는 전사라는 두글자에 붉은 줄을 힘주어 그으시였다.

(동지들과 인민들을 구원하고 전사했다단 말이지...)

어쩐지 그 문구에서 시선을 땄수가 없으시였다. 전사?!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근 60년이 되였어도 오늘까지 침윤되어있는 그 처절함의 폭음을 항상 감수하며 긴장하게 살아야 하는 특이한 직업이 바로 폭발물처리대원들이다.

그러니 옳다. 전사가 옳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못내 가슴이 아프시여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창문밖으로 잎이 누렇게 물들기 시작한 수삼나무들이 내다보였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우수수 낙엽이 흩날려 정원의 아스팔트길위에 휘뿌려졌다.

가을날의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청청하다. 창

밖을 내다보시는 그이의 눈앞에는 벌써 몇번재나 읽어보는 그 문건의 글줄들이 뿌리를 내린듯 떠날 줄 몰랐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제일먼저 그 위협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초인간적힘을 쏟는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상반되게 행동해야 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웨친 그 목소리가 요란한 폭음과 함께 메아리로 울려오는듯싶어 마음을 진정할수 없으시였다.

최후의 순간에조차 폭발방향을 보고 동지들을 산우로 떠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진정이 그대로 안겨오시는데 한참동안이나 멀리 하늘가를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시고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을 찾으시였다.

잠시후 수화기에서 리명섭정치국장의 석범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리명섭 전화받습니다.》

《아, 정치국장동지입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원수님, 저는 일없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딘가 모르게 풀이 죽어보이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전사들을 잃고 가슴아파할 로병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듯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이렇게 물으시였다.

《강원도인민보안군 폭발물처리대원들때문에 마음쓰는건 아닙니까?》

그러자 수화기에서는 《예?!》하고 깜짝 놀라는 리명섭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분명 그들의 생각을 하고있은것이 확인했다.

《내무군정치국에서 올려보낸 문건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문건만 보아서는 속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식령에서 폭발물을 처리하다가 전사한(그이께서는 전사라는 말마디를 의미있게 강조하시였다.) 폭발물처리대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해서 전화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저... 그들은 원수님께서도 아시는 동무들입니다.》

리명섭정치국장의 말에 그이께서는 무척 놀라운 표정을 지으시였다.

《내가 알고있는 동무들이라니?!...》

《예, 얼마전에 원산-평강철길주변에 대한 집중적인 폭발물처리전투를 조직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떠오르신듯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아, 생각납니다. 그러니 그때 폭발물처리전투에 참가했던 동무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이라면 **김정은**동지께서는 잘 알고계시였다. 그것은 지난 2월부터 6월사이에 진행된 집중탐

색전투였다.

이 전투에 참가하였던 폭발물처리대원들은 한몸의 위협을 무릅쓰고 원산-평강철길주변에서 폭발물처리전투를 긴장하게 벌려 6월 중순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렸던것이다.

그때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시였다. 인민의 생명재산을 위해 또 한가지 큰일을 한 그들을 어떻게 표창해줄것인가 하고 많이 생각해보시던 끝에 그이께서는 리명섭정치국장을 부르시여 물으시였다.

《물론 국가수훈도 내신하고 평가도 크게 해주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것 같아 불렀습니다. 어디 정치국장동무가 그들의 솔직한 심정을 대표해서 말해보십시오, 뭘 더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리명섭은 조금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올렸다.

《저... 그 동무들은 항상 위협을 동반하는 전투를 수시로 벌리면서도 언제나번 조건타발을 하는적이 없는 동무들입니다. 제 생각엔 폭발물탐지설비들과 안전장비들을 지금보다 더 현대적으로 갱신해주면 그들이 몹시 좋아할것 같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손에 드시였던 원주필을 다시 책상위에 놓으시고 리명섭을 건너다보시였다.

《더 다른것은 생각해본게 없습니까?》

《...》

리명섭은 그이께서 무엇을 념두에 두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잠자코 서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 그의 심정을 가늠하신듯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사업에서 원칙이 강하고 조그마한 사실이나 번심도 없이 한생을 곧바르게 살아온 그의 마음은 리해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생각도 없지 않으시였다.

《그 동무들의 사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없습니까?》

그제서야 리명섭은 그이께서 어떤 취지에서 물으시는지 가늠이 갔다.

사실 세상에 수많은 직업과 직종이 있지만 폭발물처리대원들처럼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환경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없을것이다.

남들이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있을 때 언제 어디서 그 가슴스러운 불발탄들이 우리 인민들의 생명을 앗아갈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다보니 폭발물처리대원들은 가정에 묻히는 일이 더더구나 없었다. 그들은 당에서 맡겨준 혁명 임무를 쉼버리고 잡다한 가정사에 매달리는것은 군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것으로 해서 그 어떤 평가를 바라적은 더욱 없었다. 자기가 응당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바란다는것은 또 뭔가.

폭발물처리대원의 예민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손끝에 그런 타산이나 미련이 조금이라도 매달려있다면 가장 정확한 판단과 모험으로 땀절은 분분초초를 건디여내지 못할것이며 애당초 이 길에 나서지부터 않았을것이었다. 그런데...

리명섭은 그 모든것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그대로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일뿐 대답을 울리지 못하였다.

《한생을 정치일군으로 빼가 굳어진 정치국장동무가 그것을 모른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김정은동지의 이 말씀에 리명섭은 할수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다.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김정은**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것 보십시오. 설비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사람들의 마음속 고충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그들이 바라는것은 가정의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제일 귀중할것이 바로 부모차자들과 자기 가정에 대한 애착일것입니다. 1년중에 몇달씩 집중탐색전투로 집을 떠나있는 때가 더 많았고 옷매를 다듬어주는 안해들의 손길과 어린 자식들의 볼에 입을 맞추어주며 대문밖을 나서는 평범하고 레사로온 출근길보다 자리러지게 울리는 경보신호에 달음박질쳐나가는 한밤중의 비상정황이 더 많았을것입니다.》

전사들이 그저 〈알았습니다.〉밖에 더 모른다고 하여 일만 시킬줄 알고 아낄줄 모르면 그런 사람들은 일군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번에 원산-평강사이 폭발물처리전투를 승리적으로 끝낸 모든 전투원들에게 표창으로 가족들과 함께 평양견학을 시키자는것을 제기합니다. 꼭 가족들과 함께 말입니다.》

《예?! 평양견학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언제한번 가족들과 함께 평양에 와보았겠습니까. 또 아이들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간다면 더 좋아할것입니다. 평양에 와서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만경대고향집과 대성산혁명렬사릉, 애국렬사릉과 창천거리, 인민극장, 개선청년공원과 룡라인민유원지 등을 다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그 모든 창조물마다에 안전담보의 첫 자욱을 제일먼저 소문없이 찍어가는 자기 남편들과 아버지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양견학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로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폭발물처리대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평양견학이 진행되었다....

《그럼 그때 평양에 올라왔던 사람들속에...》

《예. 김금석, 한명남동무들이 다 가족을 데리고 올라왔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시는듯 말없이 앉아서계시었다.

비록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견학일정을 다 채우지 않고 앞당겨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신것은 그이께서 현지도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후였다.

그때 리명섭정치국장은 무척 놀라시는 그이께 이

렇게 말씀올렸다.

《제가 동무들이 떠난걸 아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는가고 몇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원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아직도 그 위험한 불발탄을 다 제거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원수님의 현지도소식을 듣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며 무작정 짐을 싸들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너무 절절하게 나오길래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떠나갔단 말이요? 무척 서운했겠는데...》

《그렇습니다. 평양을 떠나는것이 아쉬워 온바가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리명섭은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난듯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었다. 그리고는 그이앞에 종이 몇장을 꺼내놓았다.

《이것은 그들이 평양을 떠나면서 쓴 반영문을 읽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천히 그 종이장들을 한장한장 번져보시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최전연병사들을 찾아 철령을 넘고넘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을 뵈을 때마다 자신들의 사명감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던 우리들인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히려 몇달씩 가족들과 떨어져 폭발물처리전투를 해온 우리들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헤아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평양견학까지 마련해주실줄을 저희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

꿈같이 보낸 나날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평양으로 올 때는 꼭 원수님을 만나뵈오러 오는 심정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새 군복까지 마련해가지고 왔습니다....

래일이면 평양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서운한 감정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폭발물처리대원들이 폭탄을 안고 멀리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원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원도땅에서 불발탄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날 다시 평양으로 달려오겠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슴이 찡-해움을 느끼시었다. 글줄마다에서 안겨오는 그들의 진정이 눈시울을 뜨겁게 해주었다.

겹쳐드는 위험앞에서도 오늘을 그리며 곳곳이 살아온 그들이 아닌가. 하지만 그 모든 그리움을 안고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이 길을 갔다.

그이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내신것이 못내 서운하싯듯 한동안 말없이 반영문들을 들여다보시다가 그들이 마지막으로 불렀다는 노래의 구절구절을 속으로 외워보시었다.

내 사랑 평양 내 심장 평양
꿈결에도 그리운 마음의 고향
저 하늘 아득히 평양은 멀어도

이내 마음 곁에 있네
평양 평양 장군님 계신 곳 안녕하시라

천리 가도 내 고향 만리 가도 내 고향
영원토록 변치 않을 마음의 고향
행복이 꽃피는 어버이 품이어
부디 안녕하시라
평양 평양 장군님 계신 곳 안녕하시라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도 그들의 절절한 노래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아 송수화기를 드신채 이윽도록 말씀이 없으시였다.

《그러니 평양전학을 하고 내려가서 석달도 못되어 희생되었단 말이지요...》

그이께서는 조용히 뇌이시며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렇습니다, 원수님.》

수화기에서는 리명섭의 목소리가 짙막하게 울려왔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서운한 기운이 가득 실려있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 모든 감정들을 폐부로 느끼고계시였다.

《그때 시간이 없어 그 동무들을 만나보지 못한것이 아쉽습니다... 정치국장동무는 오늘중으로 그 동무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대책안을 다시 만들어 올려보내야 하겠습니까.》

《예?!》하는 놀라움에 찬 목소리가 한순간 울리더니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재차 울려왔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시 한번 그루를 박아 말씀하시고는 송수화기를 내려놓으시였다.

《기다리겠습니다.》

2

리명섭정치국장을 태운 승용차는 시내중심을 살같이 달렸다.

누렇게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가로수들이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스쳐지나갔다.

오후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비구름이 후둑후둑 비방울을 뿌려던지기 시작했다.

퇴근길에 올랐던 사람들이 비를 피해 뛰여가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리명섭은 그 모든것을 감수하고 느낄 마음속 여유가 없었다.

그의 마음은 분주히 오르내리는 속도계의 바늘처럼 착잡했다.

모든 생각이 오직 한쪽으로만 향했다.

그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길이었다.

(무슨 일이실까? 혹시 다시 만들어올린 문건에 잘못된것이이라도...)

그는 자기가 올린 문건에 대하여 다시금 꼼꼼히

생각해보았다.

특별히 두드러지거나 큼직한 위훈을 세워 이룬 난 사람들도 아니고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인민보안원들이어서 그들에 대한 자료를 쓰기가 무척 급했다.

하지만 단 한가지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기 전에 인민의 보안원들이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속에서 떠날줄 몰랐다.

동시에 자기자신은 그런 정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가 하는 생각도 갈마들었다.

(나 역시 그들처럼...)

리명섭자신도 그들처럼 행동했으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생각될뿐이다. 실지 그런 정황에 맞다든다면 자신은 어떻게 행동했을가. 직접 당해 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수도 예측할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옳은 선택이었다는것만은 확신하였다.

만약 위기일발의 순간에 한결음이 아니라 반결음만 뒤걸음쳤다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불명예가 그들을 맞이했을수도 있지 않았는가.

비록 값비싼 대가이긴 하지만 그들은 자기희생으로 인간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

자기가 회의나 모임때마다 늘 강조하군 하던 그 말을 그들은 실천으로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기쁜 마음을 금할수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쉬운것은 그들이 자기 자식별이나 되는 전도가 창창한 40대의 젊은이들이라는것이였다. 자식들도 모두 어리다. 안해들도 젊었고...

오랜 정치일군으로서 희생된 전우들을 위해 무엇인가 더 해주고 더 내세워주어야 한다는 도의심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래서인지 문건의 자자구구에 그의 이런 심리가 반영되어있었다.

(만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문건의 자료들까지 빈약하다고 하신다면...)

리명섭의 머리속에는 문건에는 다 반영할수 없었던 극히 세부적이고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희생된 동지들과 영결하고 전우들이 고인의 유가족을 찾아갔을 때 너무 울어서 두눈이 시뻘겋게 충혈진 김금석의 안해는 남편의 사진앞에 앉아서 일어날념도 못하고 그들을 맞았다고 한다.

《해연이 어머니, 너무 마음쓰지 마시구 몸을 돌보시오. 그러지 않아도 금석동문 늘 해연이 어머니가 속탈이 심하다고 걱정을 해왔는데 그러다 쓰러지겠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금석동무가 못다한 일을 해야지요.》

김금석의 안해는 쏟아지는 눈물을 겨우 건잡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리고 맞은켠 벽에 걸어놓은 달력을 바라보며 말했다. 《애아버지가 출장을 갔을 땐 해연이와 함께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기다렸습니다. 또 돌아오는 날이면 특식도 마련해놓고 명절처럼 집안이 풀렸지요. 정작 집에 들어서는 애아버지를 볼 때면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니다. 집에서 손가락이 모자라게 섬을 세며 기다려온 딸에한테 선물이라도 한가지 사들고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져오는 것이란 그저 팍배인 작업복뿐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빨간 동그라미들로 가득찬 달력을 눈여겨보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아니, 저런?!》

10월 20일이면 끝나리라고 생각했던 동그라미가 오늘까지 계속 그려져있는 것이 아닌가.

(이들은 지금까지도 금석동무가 결을 떠났다고 생각지 않고있지 않는가?!)

그들모든의 마음이 심본 리해가 되었다.

지금껏 저렇게 아버지와 남편을 기다리며 동그라미를 그려왔으리라. 이런 그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자리잡은 그 동그라미를 쉽게 지울수 있단 말인가.

과연 그가 안해와 자식에게 남긴 건 그리움밖에 없단 말인가.

그때 김금석의 딸 해연이가 눈같이 새하얀 종이에 쓴 것을 아버지의 전우들앞에 내놓았다.

《이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고간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헤쳐보니 봉투안에서는 시퍼렇게 녹이 쓴 탄피 3개가 나왔다.

《매번 아버지의 빈 가방을 열어보고는 시뚝해하는 팔애를 보기가 멎었던지 언젠가 금강군에 출장을 갔다가 그것을 종이에 싸가지고 왔습니니다. 해연이는 아버지가 선물을 가져왔다고 퐁퐁 튀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글썽 펼쳐보니 그안에 탄피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때는 남편의 마음을 다 몰랐습니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때 애아버지가 왜 딸애에게 탄피를 가져다주었는지 리해가 됩니다.》

전우들은 불을 적시며 흐르는 눈물을 더는 감출수 없었다.

이런 감정을 그들은 한명남의 집에서도 느낄수 있었다고 한다.

사랑하는 안해와 어린 남매 두 자식에게 한명남은 별로 남긴 것이 없었다.

있다면 한번도 입어보지 못한채 걸려있는 새 군복과 온 가족이 함께 원산유회장에 놀러 가자고 했던 지키지 못한, 지킬수 없었던 약속뿐이었다.

언제인가 폭탄이 튀면서 찢어진 남편의 군복을 불안고 밤새 자지 못하고 혼자 눈물을 흘리던 안해가 새 군복을 꺼내놓았을 때 파묵하기로 소문난 남편의 입에서 폭탄같은 노성이 터져나왔다.

한명남의 안해는 그때의 일들이 생생히 되살아나

누가에 가랑가랑 눈물이 맺히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애아버지는 자기만 옷이 그런가, 이렇게 혼자 신랑같은 차림새로 사람들앞에 나서는 것이 바로 폭발물처리대원의 창피이고 망신이라고 나무람하며 그전에 입던 낡은 군복을 그냥 꺼내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 너무도 야속하고 노여워 대뜸 울음을 터뜨렸지요.

애아버지는 대뜸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의 심정을 내가 왜 모르겠소. 그럼 이렇게 하지요. 이제 우리가 이 강원도 땅에서 폭발물을 모조리 제거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리는 그날에 이 군복을 입겠소. 어쩐지 새 군복을 보니 이런 생각이 불쑥 드는구만.》 하고 말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전 남편의 가슴속에 무엇이 자리잡고있는지 알게 되었고 아이들과 한 약속마저 지키지 못한 남편의 마음이 리해되었습니다.》

방바닥에 어쭈러져 자고있는 아이들의 손에 사진 한장이 쥐여져있었다. 가만히 훑아보니 그것은 언제인가 설날에 한명남의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도 사진이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사진의 한쪽모서리에 아이들이 써넣은 5점이라는 점수였다. 그것을 보느라니 생각이 많아졌다.

(오죽했으면 아이들이 사진에 점수를 다 매겨놓았을가.)

마음 한구석에서 무엇인가 알지 못할 감정이 끓어오르며 또다시 그들의 눈가를 축축히 적셔놓았다고 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떠올리고난 리명섭정치국장은 《탄피 세개와 새 군복이라...》하고 입속말로 조용히 되뇌이였다.

새길수록 김금석, 한명남에 대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잡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리명섭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후더워져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시각 **김정은** 동지께서 타신 승용차는 당중앙청사를 가까이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차안에서도 줄곧 사색을 이어가시였다.

다가오는 전승 60돐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 도에 인민군렬사묘들을 잘 꾸리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련속 떠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서류가방속에서 평양시에 새로 꾸리게 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형성안과 거기에 안치할 인민군렬사들에 대한 자료들을 꺼내보시다가 문득 갈마드는 생각에 눈길을 드시였다.

(유해를 옮긴다. ...)

그이께서는 지금 시신도 못 남긴채 희생된 폭발물처리대원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계시였다.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피로써 조국을 지킨 영웅전사들과 평화시기 목숨을 바친 폭발물처리대원들, 그들사이에는 60년이라는 시대적차이는 있어도 그들이 발휘한 영웅적희생정신에는 차이가 없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말없이 차창밖을 내다보시였다. 보슬보슬 내리던 보슬비가 어느새 발이 굽어져 이제는 제법 추룩추룩 소리까지 내며 콩크리트바닥에 뒀안 운무를 피워올렸다.

한참동안이나 비내리는 차창밖을 바라보시던 **김정은**동지께서는 다가오는 보통문빠스정류소쪽을 유심히 살피보시였다.

금방 사람들을 다 태우고난 무궤도전차가 정류소를 떠나고있었다.

노란 비옷에 빨간 장화까지 받쳐신은 꼬마가 차에 오를틈은 하지 않고 자기 키만큼 큰 우산을 두개씩이나 들고 콩콩 뛰는 광경이 보였다. 애어머니인듯 한 녀인이 남자장화 한켠레를 손에 들고 정류소의 파란 수지채양밑에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 모습도 얼핏 스쳐지났다. 애아버지를 마중나온 것이 분명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등뒤로 멀어져가는 그들의 모습이 왜서인지 가슴속을 파고들고있음을 느끼시였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희생된 강원도폭발물처리대원들의 가족들 생각이 불쑥 떠오르시였던것이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까? 오늘도 비내리는 길가에 나와 다시 오지 못할 남편들과 아버지를 기다리고있지나 않는지...)

그이께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랜 빠스정류소쪽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시였다.

승용차가 당중앙청사에 다달았을 때까지도 그이께서는 총각애와 녀인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시여 마음을 진정할수 없으시였다.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명섭정치국장이 들어서기를 기다리시면서 새로 꾸리게 될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의 외부와 내부형성안을 보아주시였다.

벌써 수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친 형성안은 그전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늘의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특색있게 되어있었다. 그속에서도 제일 마음에 드신것이 조국해방전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항일혁명투쟁과 전후에 이룩한 우리 조국의 자랑찬 승리의 역사를 모두 담아 형성한것이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천히 일어서시여 방 한켠에 가져다놓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모형사관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전승기념탑을 중심으로 량옆으로 세운 군상들은 원래대로 살리면서 광장 한가운데를 꽃화단과 춤추는 분수로 장식하여 전승의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전승기념탑뒤에 있는 전승기념관은 이미전의 건물보다 세배나 더 크게 지었고 광장과는 다리로 련

결시켜 참관로정을 잡았다.

이제 건설이 끝나면 이 지구는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그이께서는 새롭게 변모된 전승기념관지구를 눈앞에 그려보시기라도 하듯 두손을 허리에 얹으신채 사관우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였다.

바로 그때 리명섭정치국장이 서기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섰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시였다.

《이거 늦게 찾아서 미안합니다.》

리명섭은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굳어진 몸자세와 그의 얼굴에 비친 긴장감을 알아보시고 그를 사관앞으로 이끄시였다.

《그때 정치국장동무 보기엔 어떻습니까. 여기 전승기념관형성안이 잘된것 같습니다?》

《예?!》

그이께서는 갑작스레 던지신 물음앞에 어리둥절해하는 리명섭을 바라보며 호탕하게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그렇게 심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시기 벌써 안주소년근위대에서 싸운 정치국장동무는 당당한 로병인데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우리 새 세대가 전세대들에게 드리는 선물인데 어떻습니까?》

그제야 리명섭은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올렸다.

《정말 멋있습니다. 로병들이 좋아할것입니다.》

《이제 기념관안의 매 층과 호실마다 게시할 내용들을 보면 더 기뻐할것입니다. 이번에 실내 중앙홀에 전승열병식을 사열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립상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혁명의 진행정에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위대한 수령으로 진두에 높이 모시지 못했다면,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 충정의 붉은 마음 다 바쳐온 수령님의 진정한 전우들이 없었다면 어찌 휘황찬란한 오늘을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승리의 역사는 곧 일련단심 수령님들을 받들어온 충정의 력사이며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친어버이 정으로 따듯이 품어안고 키워주고 이끌어주신 수령님들의 력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혀있던 사진자료들도 더 많이 발굴보충하고 내용도 더 풍부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웁습니다. 열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어제날의 승리의 전통이 오늘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계속하시였다.

《요즘 나는 그렇게 될수 있다는 신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김금석, 한명남동무들과 같이 당에 충실한 전우들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들의 희생정신이 나에게 그런 신심을 북돋아주었습니다.》

그이의 확신에 넘치신 목소리가 온 방안을 찌렁 찌렁 울렸다.

《이제 전승 60돐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더 크게 꾸리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도 꾸려놓으려고 합니다.》

리명섭은 자기도 모르게 환희로운 감정에 휩싸여 그이를 경건히 우러러보았다. 긴장했던 마음은 언제 풀렸는지 한결 누그러졌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리명섭에게 천천히 자리를 권하시고는 자신도 의자에 앉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내무군정치국에서 올린 문건을 손에 드시고 한장한장 번져가시었다.

《전번에 정치국장동무한테서 김금석, 한명남동무네가 평양견학을 왔다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것이 아쉬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도무지 그들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의 소원을 내가 풀어주지 못한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제가 실없는 소리를 해서...》

《아닙니다. 정치국장동무는 솔직한 심정을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오늘도 그때처럼 그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꼭 목숨을 내대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김정은동지께서는 나직이 물으시었다.

《그들은 살수도 있었습니까. 폭약으로 순폭시키면 얼마든지 살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폭발하면 가까이 있는 력사유적인 명적사가 손상될수 있고 또 산불이 날수 있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별거승이가 된 산들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는가 하고 하며 힘들어도 안전한 곳에 가져다가 폭발시키겠다고 하다가 그만...》

《그렇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문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그러시다가 문득 《정치국장동무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졸전에 차를 타고 여기로 오다가 보통문네거리 버스정류소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총각애와 남편을 기다리는 녀인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시며 의미깊은 표정으로 리명섭을 바라보시었다.

《그들을 보니 생각되는게 많았습니다.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길로 남편들을 떠나보내고 매일 저녁 마음조이며 기다렸을 김금석, 한명남동무들의 안해와 자식들이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고있는지... 물론 그곳 동무들이 잘해주겠지만 어째서인지 그냥 걱정이 됩니다. 문건에서 보았는데 오늘은 김금석동무의 생일이 아닙니까? 모름지기 오늘도 돌아올수 없는 아버지와 남편을 그리며 뜬눈으로 밤을 새울것입니다.》

《예?!》

리명섭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움을 어쩔수 없었다. 자기도 미처 생각 못했던 희생된 전사들의 생

일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그처럼 나라일에 바쁘신 우리 원수님께서 먼저 해주신것 아닌가. 물려드는 죄책감에 머리를 들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제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헛나이를 먹은것 같습니다. 정말 일군으로서 자격이 부족합니다.》

리명섭은 그이앞에서 소학교 학생이 된 심정으로 솔직히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

《일군의 자격을 론하자고 그 이야기를 한건 아닙니다. 그저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을뿐입니다. 왜 그런지 전 그 김금석, 한명남동무들이 생면부지가 아니라 막역지우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듣자고 정치국장동무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제서야 리명섭은 그이께서 왜 또다시 부르셨는지 리해가 되는듯 스스로 얼굴을 붉혔다. 지금까지 제출한 문건내용밖에 별로 더 아될것이 없다고만 생각한 그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시었다.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망설이고있는 모양에서 그이께서는 그의 속마음을 읽으신듯 심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동무들이 해제한 폭발물의 개수나 일한 복무년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폭탄은 한발을 해제하나 열발을 해제하나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것은 그들이 해제한 폭발물의 개수가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왔는가 하는것입니다.》

낮으나 준절하신 그이의 말씀에서 리명섭은 커다란 자책을 받았다.

자기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였을가.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자기에게는 어머니다운 품도가 조금도 없지 않는가.

자기의 전사 한사람한사람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 이것은 지금 이 시각 리명섭이 뼈에 새겨두어야 할 또 하나의 귀감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이앞에 더더욱 머리가 수그러졌다.

하여 그는 자기가 알고있는 모든 이야기를 그이께 그대로 말씀드리었다.

김금석조장이 몇달동안 출장을 갔다와서 딸애한테 탄피 세개밖에 쥐여주지 못했던 일들이며 안해가 앓아서 입원했지만 폭발물이 있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던 일들 그리고 한명남조장이 강원도에서 폭발물을 모두 해제하고 우리 원수님께 보고드릴때 입겠다고 새 군복을 걸어놓고 살아온 일들과 벌써 몇번씩이나 원산유희장에 놀러 가자고 한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들까지 묵묵히 다 듣고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그러니 그들이 안해들과 자식들에게 남긴 유산

이 탄피 세계와 입어보지 못한 새 군복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탄피밖에 쥐여 줄수 없었고 안해들의 소박한 소원도 풀어주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로했겠습니까.》

그이께서는 말없이 리명섭이 내놓은 한장의 사진을 들여다보시었다. 한명남의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볼수록 가슴이 미여지시었다.

사진속에 5점을 새겨넣은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빛》을 남겨놓고 갔는가. 그것을 회복할 기회가 다시는 없단 말인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윽도록 말씀이 없으시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순결하고 순박한 사람들인가.)

정녕 그들의 님은 수정과도 같이 맑고 깨끗한 것이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지시었다. 그 마음이, 그 님이 천금같이 귀하게 여겨지시었다. 그들의 인생을 5점이 아니라 백점, 만점으로 빛내어 주고싶은 욕망이 용암처럼 솟구쳐오르시었다.

그이께서는 리명섭정치국장을 돌려보내신 후에도 줄곧 이런 생각으로 시간가는줄 모르시었다.

...

4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집무실에서는 무겁게 옮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자국소리만 정적속에 조용히 울릴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김금석, 한명남에 대한 생각으로 일손이 잡히지 않으시었다.

(그들이 바란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마식령에 울린 그날의 폭음이 그이의 귀전에 생생히 되살아나시었다. 그것은 마치 최후의 순간에 그들이 하지 못한 말, 항상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 두었던 고백이고 먼 후날까지도 그려보았을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부탁과도 같았으며 후대들에게 남긴 인생의 당부라고 생각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우에 다른 한가지의 의미들더 부여하고싶으시었다. 그것은 조국앞에 비추어 보이는 그들의 순결하고 깨끗한 량심의 총화라는 것이었다.

그 모든 소망과 지향, 고백을 함축한 폭음의 의미를 강렬하게 느낄수록 그이께서는 그들의 희생이 돋보이고 잊혀지지 않으시었다. 바로 그들의 꿈과 지향, 그 모든것이 인민들에게 귀착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데로 향한다는기때문이라는 생각이 갈마드시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까지 바치지 않았는가.

인민들과 동지들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내대는 인간, 그런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 평범한 폭발물처리대원들의 세계는 얼마나 높은것인가.

생각하실수록 그들에 대한 존경의 감정이 더욱 짙어갔다.

그들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인민보안원들이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렇다. 평범하게 흘러온 생활이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바쳐졌는가에 따라 평범한 생활로 되지 않는 법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키워주시고 우리 당이 키워낸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이 굳건하고 수령님들의 이민주의의 사상이 온 나라에 그대로 맥박치는것 아닌가.

《땡-땡-땡-땡-》

새날을 알리는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가 장대재 언덕을 넘어 은은하게 울려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집무실 창가립천을 한쪽으로 쭉 밀어놓으시고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시었다.

쌀쌀한 새벽공기가 순식간에 방안으로 밀려들었다. 그이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숨을 크게 들이쉬시었다. 머리가 거뼎해지고 밤새 쌓인 피로가 가뭇없이 사라지는듯싶으시었다.

(그렇다, 그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따라배워야 할 정신세계가 있다. 일심단결의 밑천이 될수 있는 승고한 정신세계가...)

김정은동지께서는 집무탁으로 다가서시어 송수화기를 드시고 리명섭정치국장을 찾으시었다. 잠시 후 송수화기에서 리명섭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리명섭 전화받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서둘러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전화기앞에 나선 리명섭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안겨오시었다.

《일찌기 깨워서 미안합니다. 제 좀 생각되는게 있어서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되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밤을 지새우신것이...》

리명섭은 송구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원도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 김금석, 한명남동무들의 일때문에 정치국장동무를 깨웠습니다. 문건에는 그들에게 련사증을 수여하고 자식들을 혁명학원에 보낼데 대한 의견을 올려보냈는데 이것이 답니까?》

《저...》

리명섭은 조금 망설이다가 《그들의 안해들을 군복을 입혀 남편들의 뒤를 잇도록 하려고 합니다.》라고 자기 속생각을 아뢰었다.

《그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는 희생된 사람들의 고귀한 넋을 지켜주고 이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넋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희생되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다름아닌 우리 땅을 먼저 생각했을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고결한 넋을 이어주고 빛내주어야 하며 그들이 지금껏 헌신해온 모든것을 다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혁명가의 의리이고 도덕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흥분된 마음을 견잡을수 없으시어 잠시 말씀을 끊고 집무탁우에 놓인 문건을 드시었다.

《폭탄이 터지는 위험한 순간에 자기보다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였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들이 평시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런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위험앞에서 망설이게 되며 위기일발의 순간에 자기 운명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들은 닥쳐온 위험이 어느 정도로 큰것이며 또 자기들이 죽는다는것을 이미 알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희생되는 마지막순간까지도 동지들과 인민들을 무사히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시신도 남기지 못한채 우리결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동지께서는 문건을 다시 책상우에 놓으시고 그우에 손을 얹으시었다. 얇은 문건의 갈피속에 폭발물처리대원들의 한생이 비껴있다고 생각하니 문건에서 그들의 체온이 느껴지는듯 한 느낌이 드시였고 귀전에는 그들의 심장의 마지막동음이 막들려오는듯싶으시었다.

그들이 걸어온 짧은 생도 그렇지만 못다 걸은 길고긴 생도 그들은 이렇게 살았으리라는것을 조금도의심치 않으셨다.

《평범하게 흘러온 그들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것을 이야기해주고있습니까. 나는 온밤 그 동무들 생각으로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인민을 위해 묵묵히 자기 초소를 지켜온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지향과 보람이 무엇이였겠습니까. 인민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고 그 행복의 밑거름이 되어주는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고 또 자기들은 그 뜻을 제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전사라는 자각, 오직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받드는 길에서 묵묵히 한생을 바치려는 그 정신, 인민들과 동지들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인간들의 숭고한 세계. 그들은 비록 이 땅에 살점 한점 묻지 못했어도 얼마나 큰것을 남겼습니까, 얼마나 위대한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 진짜배기일군이고 참된 인간이며 영웅들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심심산골에서 생을 아름답게 마친 이 동무들에게는 영웅칭호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 영웅칭호 말입니까?…》

뜻밖의 말씀에 얼떠름해진 리명섭은 너무도 꿈만 같아 더 말을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로력영웅칭호가 아니라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자는것을 정식 제기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고맙습니다. 그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되면 유가족들은 물론 인민보안원들

모두가 기뻐할것입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수화기에서는 리명섭의 기쁨과 감격에 넘친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우리 인민보안원들전체가 그들처럼 살겠습니다.》

원수님의 믿음을 심장에 간직하고 한생을 영웅으로 살겠습니다.》

리명섭의 불같은 결의를 들으시는 그이께서도 마음이 한결 기쁘시었다.

《그래야 합니다. 김금석, 한명남동무들뿐아니라 이 나라 모든 인민보안원들이 아니, 우리 혁명대오가 모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군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 동지부대, 우리 당의 전우부대가 될수 있습니다. 나는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김금석, 한명남동무들과 같은 인민보안전사들이 있기에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가장 평범한것이 가장 위대한것이 있습니다. 나는 김금석, 한명남동무들을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 이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자식들과 안해들은 물론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이 따라배워 순간을 살아도 이룰처럼 우리 제도와 인민을 위하여 값높은 생을 바칠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웅들의 안해들을 평양에 불러 큰 회의에도 참가시키고 토론도 시킵시다. 그리고 김금석, 한명남동무들을 련사릉에 안치하여줍시다. 그것도 집가까이에 있는 원산렬사릉에 세워줍시다. 늘 기다리며 살아온 유가족들이나 친근한 전우들이 어느때든 찾아가볼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들의 빛나는 최후와 그들이 품었던 고귀한 빛은 우리 당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신채 아침노을이 붉게 물드는 창문을 바라보시었다. 멀리 지평선너머에서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모양은 장관을 이루었다.

며칠후 신문, 방송들은 일제히 김금석, 한명남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보도했다.

온 나라가 영웅들의 이야기로 법석 났었다.

김금석, 한명남의 자식들은 혁명학원체복을 입고 원산시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평양으로 떠나갔고 영웅들의 안해들은 계급의 군복을 입고 남편들이 썼던 초소에 나란히 서게 되었다. 김금석, 한명남영웅들이 복무하던 강원도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는 정식 《영웅폭발물처리대》로 명명되었다.

평양체육관홀에서는 폭풍같은 환호소리가 터져올랐다. 꿈결에도 그립고 뵈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기 위하여 나오신것이였다.

기쁨과 환희로 들끓는 평양체육관 한복판으로 걸

어나오시는 태양같이 환하신 모습을 뵈는 순간 리명섭은 자기도 모르게 눈곱이 젖어올랐다.

그는 눈물이 그러한 눈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경례를 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

그리고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반갑게 그의 손을 잡아주시었다.

《이번에 큰 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느라 수고 가 많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리명섭은 손등으로 눈곱을 닦으며 **김정은**동지께 이렇게 말씀올렸다.

《고맙습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인민의 생명재산을 굳건히 지켜서있는 인민보안전사들을 굳게 믿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정에 넘치는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장대를 둘러보시었다.

《참, 김금석, 한명남동무들의 안해들도 참가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바로 저기 서있는 저 여성동무들입니다.》

리명섭은 촬영대의 맨앞에 서있는 김금석, 한명남의 안해들쪽을 가리켜드렸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못내 반가를 미소를 지으시며 활달한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군복을 입은 동무들을 보니 내 오늘 김금석, 한명남동무들을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김정은동지의 우렁우렁하면서도 정에 넘친 음성들을 들으며 두 녀인은 그의 따사로운 한품에 오락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너무 이리저 마십시오. 내 지금껏 김금석, 한명남동무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보낸것이 늘 가슴에 걸려있었는데 오늘 동무들을 보니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린 원수님말씀대로 영웅남편들의 넋을 곳곳이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두 녀인의 결의를 들으시고 그들의 두손을 꼭 잡아주시었다.

《꼭 그래야 합니다. 동무들의 남편들은 정말 쉽지 않은 동무들입니다. 김금석, 한명남동무들은 우리 시대 인민보안원의 전형입니다. 그들의 고귀한 넋이 모두의 심장속에 영원한 생의 메아리로 울려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기념사진을 남편들의 군복과 나란히 걸어두시오. 그러면 동무들의 남편들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것으로 될것입니다. 그럼 나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시고는 회의참가자들이 서있는 곳을 돌아보

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저길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동무들의 남편들이 우리결을 떠났다고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금석, 한명남동무들은 비록 이 자리에 못 왔지만 그들의 넋을 이어 수많은 인민보안일군들이 서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영광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것입니다.》

장내에는 또다시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리명섭은 순간 솟구치는 격정으로 숨이 꺾 막혔다.

김금석, 한명남의 안해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대로 걸으시는 그이를 따라설념을 못한채 자리에 못박힌듯 굳어져버렸다.

(이 땅의 가장 평범한 전사들을 저렇듯 크나큰 단상, 인생의 절정에 세워주시다니...)

김금석, 한명남이, 동무들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영생의 언덕우에 세워주신분, 동무들의 고귀한 넋이 온 사회에 기류를 이루게 하고 대하를 이루며 끝없이 흐르게 하신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오.

바로 우리 원수님이시란 말이요!)

리명섭은 환희와 감격으로 휩싸인 기념사진촬영장을 다시금 둘러보았다.

마치 오늘의 영광을 이들 두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받아안은듯 한 느낌이 들었다.

김정은동지의 깊으신 응지와 그 숭고한 세계가 온몸으로 스며들어오는것만 같았다.

(저 사람들이 평범한 이들 두 전사때문에 기울어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로고와 심혈을 알수만 있다면, 그이의 높으신 세계를 다문 몇십분의 하나라도 알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주권의 사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인간중의 인간이시고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이 땅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참되고 위대한 인간들로, 시대의 전형으로 영생하는것 아닌가. 그이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넋으로 뭉친 우리의 단결, 수령과 전사의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힘당할자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랴. 이런 위인을 모시고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민들이고 얼마나 행복한 전사들인가.)

리명섭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손을 저어 답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우신 모습을 우러르며 목껏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

얼마후 원산렬사릉이 있는 반고개기슭의 양지바른 곳에 김금석, 한명남영웅들의 비석이 나란히 솟아났다. 금별메달을 부각한 눈같이 하얀 비석에 붙인 돌사진들에서 미소를 지은 영웅들의 모습이 유표나게 안겨왔다.

그앞에 누군가가 가져다놓은 꽃다발과 꽃송이들이 하나의 큰 화단을 이루며 향기를 풍겼다.